

LINE 인터뷰

—
글로벌 IT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의
도전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현재

217,000,000

글로벌 MAU (월 활성 이용자수)

230countries

서비스대상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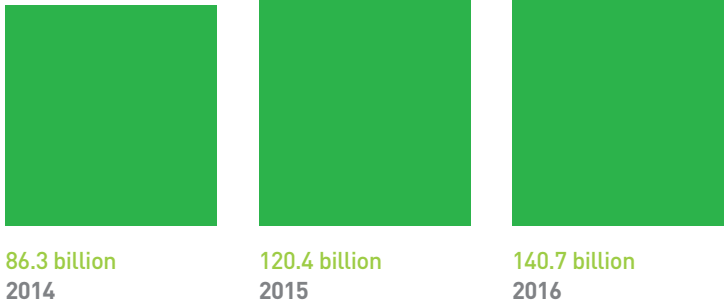
19 Languages

아랍어, 포르투갈어(브라질), 영어, 불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이태리어, 일어, 한국어, 말레이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스페인), 스페인어(남미),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태국어, 터키어, 베트남어

17% Growth

2015-2016년 매출 증가율

Currency: JPY





회사 소개

2016년 7월, LINE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NYSE)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에 동시 상장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설립한 해외 자회사가 글로벌 증시에 동시 상장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2011년 LINE 서비스를 일본에서 출시한 지 5년만의, 2013년 한국에 라인플러스(LINE 한국 오피스 명칭)를 설립한 지 3년 만에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대다수 독자들에게는 LINE의 빠른 성장과 글로벌 위상이 쉽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LINE은 한국보다 해외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LINE은 지금도 세계 각국의 사용자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출시 3년 만에 메신저 월 글로벌 활성 사용자 2억

명을 확보했으며, 1조원이 넘는 글로벌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LINE의 대표 서비스인 메신저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에게도 익숙한 라인프렌즈 캐릭터 사업, 라인 레인저스 게임 등 글로벌 고객의 인기를 얻은 수많은 서비스는 LINE의 성장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LINE은 현재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탄생한 LINE은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포털로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IT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의 도전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LINE의 도전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조직문화와 업무환경

LINE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직원 수도 급증했습니다. 2013년 라인플러스를 설립할 당시 직원 수는 총 150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1500명으로 4년 만에 10배에 가까운 인원이 LINE의 글로벌 성장을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료가 꾸준히 늘어나며 조직이 비대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LINE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급변하는 글로벌 IT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적응력 높은 조직문화와, 개인의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환경이 뒷받침 되었습니다. LINE의 조직문화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모인 구성원들이 동일한 목표 아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LINE의 업무환경은 직원 개개인이 업무에 집중하여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선진적 복리후생을 제공해왔습니다.

먼저 다양한 조직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수평적 조직문화를 도입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보통의 직책을 모두 폐지하고, 임직원 간 호

칭을 ‘~님’으로 통일했습니다. 연차나 서열에 관계없이 서로 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은 자유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론하며 LINE의 성장을 함께 도모해왔습니다.

또한 빠른 템포의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필요에 따라 새롭게 구성해왔습니다. 직무별 조직 운영으로 다른 직무 직원과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젝트 별로 다양한 직무의 인원을 한팀에 구성하는 등 유연한 조직 운영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직원 개개인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환경 또한 LINE 성장에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LINE은 직원에게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고급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게 업계 최고의 대우를 제공함은 물론, 최고급 사양의 최신 전자 기기나 사무용품을 제공하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어학 지원, 보험 지원, 통신비 지원, 경조사 지원, 리프레시 휴가, 출장비 적립 제도, 책임근무제 등 타 기업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많고 실용적인 복지 서비스로, 직원은 모두 최고의 업무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LINE의 세련된 조직문화와 선진적 업무환경 안에서, 직원은 LINE이라는 이름 아래 공동의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회사의 성장과 함께 개인의 성장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LINE의 도전과 성장이 순탄하게 지속되게 하는 주요한 밑거름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업무환경에서 직원 개개인과 LINE의 동반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및 지원

LINE은 직원에 대한 과감한 지원에 아끼지 않는 만큼, 함께 일 할 동료에 대한 욕심도 많은 조직입니다. LINE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경험이 많은 경력직 위주의 영입을 진행해왔다면, 현재는 점차 신입사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LINE의 성장세가 안정되었기에, LINE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신입사원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인력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신입사원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신입사원 관리 시스템으로, 신입사원이 입사 1년 이내에 퇴직하는 비율은 25%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LINE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

로는 상·하반기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방법과, 필요에 의해 수시로 발생하는 채용 과정을 통해 입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계·하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으로 입사한 후에 사원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LINE의 인턴십 과정을 경험하면서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의 1:1 코칭으로 선배 사원들과 실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동시에 진행되는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자신만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십 전형으로 선발된 신입사원들은 회사의 개발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새로운 동료에 대한 배려는 입사지원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원자들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LINE 채용 공식 계정을 운영하

여 1:1 문의에 즉답하고 있으며, 전형 단계 별로 “서류검토 중입니다”, “검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와 같이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류와 사전과제 단계에서 LINE FIT을 증명한 지원자에게는 면접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면접에 참석한 지원자는 사내 카페 이용 쿠폰과 라인프렌즈 브랜드 상품을 선물로 받게 되며, 모범택시를 타고 편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입사하게 된 SW개발직군 신입사원에게는 양질의 입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신입사원 공통 교육과는 별개로 제공되는 기술 교육을 통해, 사내 개발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전문화된 개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 중에는 프로젝트 실습도 함께 진행하여, 선배 사원의 멘토링을 받으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또한 도쿄 오피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미션을 통해 LINE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되는 현장을 체험하고, 글로벌 플랫폼 LINE의 위상을 몸소 느끼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LINE의 정식 일원이 된 후에는 위에서 언급한 최고의 대우와 세련된 조직문화, 그리고 선진적인 복리후생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실제 업무에서의 글로벌 현장 경험과 글로벌 오피스와의 협업으로, 다양한 나라의 사용자에 대한 특성을 배우고 다양한 시장에 대응하는 글로벌 개발자로서의 성장은 덤입니다.

최근 LINE STYLE이라는 이름의 인재상, 추구 가치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LINE은 LINE STYLE에 공감할 수 있는 인재들을 모시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LINE의 글로벌 IT 리더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여러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개발자는 항상 배워야 하는 직업입니다




강현식

LINE BIZ Plus Corp.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 석사 졸업




조직문화와 업무환경

Q. LINE은 어떤 조직인가요?

 개발자에 대한 배려가 매우 강한 회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LINE은 개발 환경이 매우 좋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실제 입사한 후에 그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전까지 몸담았던 회사에서는 개발자로서 개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외적인 상황이 많았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회의나 잡무 때문에 개발 업무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기도 했습니다.

LINE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신경 쓸 것이 많지 않고, 회사에서 개발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업무에서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 확실하면서도, 개발 인프라도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개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Q. LINE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글로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전에 몸 담았던 회사에서는 주로 국내 소비자를 타겟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점에 답답함을 느껴,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LINE은 글로벌 사업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실제 서비스도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급여 수준이 업계 최고 수준이며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개발자가 많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어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Q. 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A 조직문화는 내부 구성원이만 들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LINE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업무에서 자율성을 존중해줍니다. 보통의 회사의 경우에는 개발자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왜 굳이 바꾸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LINE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늘 권장됩니다. 물론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발자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팀이 공유하게 되므로 각 개인만 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작업한 내용에 대한 공유를 위해 코드 리뷰 시간을 수시로 갖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오류는 시스템 상으로 처리하거나 공유하면서,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리뷰를 하며 버그를 잡아내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회사 조직에서 완전한 수평은 있을 수 없습니다. LINE은 최소한의 서열 체계를 갖추어 책임과 자율을 보장하면서도, 레벨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 불합리한 업무지시는 전혀 없습니다. 이전의 회사와 비교를 해보면 종합적으로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업무내용

Q.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대학생들에게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A LINE 메신저의 부가기능 중 하나인 커머스(Commerce)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도네시아, 대만 등 동남아 지역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프트 샵이나 판매자들이 상품을 올리고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을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Back-end와 판매자들을 위한 페이지, sever side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web server나 frontend 등 전체적인 개발작업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Q. 현재의 직무는 대학원 때의 연구주제와 연관이 있나요?

A 완벽히 같은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원 재학 당시 전공했던 세부 전공과는 분명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논문을 작성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검색해보고, 주장의 근거를 찾아가는 작업들을 훈련해왔던 경험들이 지금의 일을 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진행했던 연구는 개발의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경험하면서, 개발 이론이 논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Q. 사내 스터디 모임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회사에서 스터디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스터디원들은 각자 공부해 온 파트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실제로 공유 내용을 업무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현재 제가 작업 중인 쇼핑물 페이지도 최근에 만들어진 기술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판매자들을 위한 admin page인 seller center를 제작하기 위해,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react 기술을 활용하여 전면 개편했습니다.

Q. 업무분야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A 현재 담당하고 있는 LINE Commerce 파트는 메신저만큼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는 피드백이 생각보다 적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작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정서와 해외의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 재미있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기능들이 해외 소비자들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느낀다거나, 오히려 불편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출장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사용자들을 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진로

Q. 캠퍼스 리크루팅에서 후배들로부터 많이 받았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은?

A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단연 ‘제가 LINE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해당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발자는 실력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은 물론이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관련 지식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포트폴리오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아군이 많다는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팀 마다 경향이 다르지만 저는 아군을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지난 달에는 딱 이틀 아군 했네요.

Q.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과학기술계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A 개발자는 항상 배워야 하는 직업입니다. 대학원생이든 대학생이든 관계 없이,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 일을 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본인을 계속 갈고 닦아야 한다는 점이 이 직업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애초부터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상관 없겠지만,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회초년생 때의 지식과 지금을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도 지식을 계속 응용하면서 쌓아 나가는 과정에 재미를 느끼며 스스로를 단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당당한 실력을 갖추게 된다면, 걱정해야 할 것이 적어지고, 속된 말로 꿀릴 것도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열심히 공부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발은 공부한 부분을 바로 적용해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업무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흔치 않은 분야입니다. 항상 공부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